

Panel: 임진왜란 (1592-1598) 이후의 조선사회의 전란극복 노력과 사회적 약자

Panelist 4

허남린 (Nam-lin Hur,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임진왜란과 유교적 가치의 새로운 전개

1. 서론

1592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개시된 전쟁은 순식간에 조선을 뒤흔들어 놓았다. 침략 3주만에 경성이 함락되고, 국왕 선조는 왕궁을 버리고 중국과 인접한 의주로 피난하고, 평양이북과 함경도의 깊은 산지, 그리고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토의 대부분은 속속 침략군에 유린되었다. 전쟁 발발 후 거의 1년이 되어가던 1593년 4월 일본군이 남쪽으로 퇴각하면서 전쟁의 참화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후 4년이 넘게 부산을 비롯한 그 인근지역은 여전히 침략군의 약탈에 노출되어 있었다. 1597년 일본군이 다시금 대거 내륙으로 침략해 들어오면서 경상, 전라, 충청도의 대부분 지역은 거의 초토화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1598년 11월 일본군이 바다 건너 모두 퇴각하기까지 7년여에 걸쳐 조선의 인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는 조선 역사에 있어 전례가 없는 참화 그 자체였다.

수 많은 인민이 도륙을 당하거나 바다 건너 끌려가고, 많은 가족이 흩어지고 와해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질서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 7년은 조선을 그야말로 존립의 벼랑에까지 끌고 갔다. 임진왜란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조선에 가했던 것이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분기점을 이루는 임진왜란은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국면을 제공한다.

임란 이후의 복구로부터 전개되는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변전하는 윤리구조는 조선사 연구에 있어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임란의 충격은 곧이어 17세기 전반 조선을 또 다시 강타한 외침, 즉 호란이 끼친 영향과 연동되어 있음으로 인해, 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주제는 자연 조선후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임란이 끼친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한정하여 본다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주제들로는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정치질서의 구축 노력, 인적 피해 즉 인구의 감소와 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여민휴식정책, 경제적 피해 특히 농업노동력 감소 및 황폐지의 증가가 초래한 세수의 감소로 인한 정부재정의 압박, 군사력의 강화 노력, 손상된 사회질서 및 신분질서의 재구축, 노비의 도망 및 추쇄, 전란중의 승군의 활약 및 전후 사자처리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종교적 기능을 발판으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불교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산출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임란 이후의 조선사회에 있어 전개되어 간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질서구축의 새로운 동향을 검토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전 시기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윤리가치는 충효열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사회에 있어서의 충효열의 핵심가치는 유교적 맥락에서 윤색되고 의미부여가 이루어져 유교적 규범을 만들어 내고 인민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규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충효열의 윤리적 가치가 조선 전시기를 통해 정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윤리적 가치는 변전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통치권력의 전개 양상과 맞물려 그 내용이 변화해갈 뿐만 아니라, 충효열의 상호 역학관계 또한 새롭게 전개된다. 윤리가치의 변화의 뒤에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권력 및 사회경제적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고, 이러한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고자 하는 지배층의 집단욕망이 숨어 있다. 윤리적 가치를 둘러싼 상부 및 하부구조의 연동관계의 해명은 조선사회에 있어서의 충효열이라는 윤리가치의 이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 우선 “충”과 “효”의 윤리가치가 임란 이후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갔는가에 대해 검토한 후, (2)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란 이후 “열”의 가치는 어떠한 양상으로 구축되어 갔는지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사족지배층 즉 남성 사족층은 무엇을 지향했는지 검토한다. 윤리적 가치의 변동양상을 고찰함에 있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그 배후에 있는 사회경제적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임진왜란으로 촉발된 조선후기 사회에 있어서의 충효열에 초점을 맞추어 유교적 가치의 특징적 전개양상을 고찰한다.

2. 임진왜란 이후 충과 효의 윤리적 가치의 새로운 전개

전란의 와중에서 국왕을 비롯한 정국의 운영담당자들은 모든 수사를 동원하여 충의 가치를 강조하고 충에서 비롯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임진년 큰 수훈을 세웠던 의병이 거의 사라져간 상태에서 충절의 정신으로 군사를 모으고 경상도 사천일원에서 나뉘는 방어선을 구축했던 金德齡과 미천한 신분의 출신이지만 역량을 발휘하여 군사를 모으고 조령의 방위에 공을 세웠던 辛忠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국가의 위기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거나 사라지자 그토록 상찬되었던 충절의 행위가 역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는 비수로 변해 되돌아왔다.

1596년 7월 충청도 홍산에서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고 청양, 정산 등 6개 고을을 함락시켰다. 전쟁의 와중에 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은 조정에 충격과를 던졌다. 이몽학의 반란군 위세는 한 때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반란군 앞에서 “수령들은 먼저 도망치고 아전과 백성들은 (몽학이 이끄는) 반란자들의 호령에 따랐고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들을) 맞이하였으며 군사가 되어 그들에게 가세하였다. 이에 소문만 듣고도 호미를 던지고 그들에게 투항하는 자가 줄을 이어 군사가 수만 명에 달하는”¹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다급해진 조정은 도원수 권율을 통해 남쪽에 포진하고 있던 의병장 “김덕령 등에게 격문을 보내어 군사를 이끌고 오게 했는데 (김덕령의)의 호남군사가 石城에 이르렀을 때 적도들은 몽학의 머리에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말을 듣고 있던 터라 밤에 몽학의 진영으로 가서 그이 머리를 베어가지고 투항해 왔다.”² 이몽학의 반란은 쉽게 와해되고 가담자는 모두 처형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몽학의 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출처도 알 수 없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은 “忠勇將 김덕령과 의병장 곽재우, 홍계남 등이 모두 군대를 연합하여 (이몽학을) 도우며, 병조판서 이덕형이 내응한다”는 것이었다.³ 소문에 이름이 떠돈 곽재우, 홍계남, 이덕형 등은 이몽학의 반군과는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반군을 평정하라고 명령을 받고 올라오던 김덕령의 군사는 아직 충청도에 이르지 못했을 때 반란군은 이미 평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소문에 귀를 기울인 국왕 선조는 김덕령을 체포하여 서울로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국의 병조판서였던 이덕형은 소문의 해명에 진땀을 빼고 겨우 혐의를 벗어났다. 그러나 김덕령의 경우는 달랐다.

국왕 선조는 서울로 압송되어 온 김덕령을 친히 국문했고, 모반의 혐의를 자백하라는 고문은 밤낮으로 이어졌다. 옥에 굳게 갇혀 있음에도 행여 변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한 선조는 옥문을 굳게 잠글 것을 명하고, 이에 따라 “의금부는 건장한 군사 1 백여 명을 동원해서 굵은 밧줄로 (이몽학을) 묶어 둔 다음 밤낮으로 에워싸고 지키기를 마치 많은 적군을 방어하듯 하였다.”⁴ 수 일에 걸쳐 모진 고문을 당하던 김덕령은 정강이뼈가 모두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며 왜 자신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는 3년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의병을 일으켜 충성을 다해 나라를 지키느라 삼년상을 못치른 불효의 죄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 자책하며 죽어갔다.

국왕에게 있어 충성이란 가치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야 하는 하위 개념에 불과했다. 왜적이 밀고 온다고 하면 겁에 질려 도망다니기에 바쁘던 국왕이었지만, 선조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자신의 능력부족과는 관계없이, 누군가가 그 위기의 극복을 위해 무조건 죽음을 바치는 것이 충이었다. 한편 왕권의 위기를 벗어나면 왕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대항적인 무력의 가능성도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충이라는 가치의 이면이었다. 때문에 나름의 무력집단을 갖춘 의병장 김덕령을 모반의 굴레를 씌워 제거했던 것이다. 충이라는 가치는 양면의 원리 속에서 작동되었다. 김덕령이 고문에 못이겨 죽임을

¹ <<선조수정실록>> 권 30, 1596년 7월 병인 (1 일).

² <<선조수정실록>> 권 30, 1596년 7월 병인 (1 일).

³ <<선조수정실록>> 권 30, 1596년 7월 병인 (1 일).

⁴ <<선조수정실록>> 권 30, 1596년 7월 병인 (1 일).

당했다는 소식에 조선의 사민들은 용력을 감추고 숨어버려, 그 다음 해 일본군이 다시 대거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도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한편 신충원의 경우는 사족지배층이 충의 가치를 자신들의 집단이익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가를 적실히 보여준다. 1594 년초 남도의 지리멸렬한 전선을 둘러본 유성룡은 조령의 방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를 위해 차출할 정규군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왕 선조는 유성룡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천한 출신이지만 담력과 조직력이 있고 충절의 정신으로 국가방위를 자원한 신충원이란 자에게 그 방어임무를 맡겼다. 이에 신충원은 승군과 산척을 모으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조령의 방비태세를 갖추어 갔다. 같은 해 10 월 충청순찰사 윤승훈이 장계를 올려 조령의 방비상황에 대해, “把截將 신충원이 백성을 모집하여 성을 쌓고 시냇물을 끌어다가 참호를 만들었는데… 그 형세가 중국의 산해관이라도 이 보다 나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고 보고했다.⁵ 같은 날, 비변사는 신충원을 포상할 것을 건의했다.

신충원의 충절은 그러나 곧 비판의 대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강화회담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일본 침략군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으로 철수하여 장기 주둔태세에 있었고, 신충원은 적과 맞닥뜨려 싸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조령의 방비를 위해 신충원이 군사를 모으고 군비를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내리고 승인한 공명첩과 둔전의 덕이었다. 신충원의 말대로, “조정에서 신을 비열하고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신에게 공명첩을 주고 군사를 모으게 하고 축성을 경영하여 견고한 곳에 요해를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높은 벼슬을 얻고 身役을 면제받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원하는 바이므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자 응모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1년 만에 성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⁶ 즉 신충원은 국가에서 제공한 공명첩을 갖고 남속책을 시행함으로써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확보하여 조령방비에 임했던 것이다.

신충원의 군대는 정유재란 기간에도 전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후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충원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1601년 9월, 신충원은 “전에 조령의 把守將으로 있을 때에 空名告身을 남용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되어 있었다. 심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신충원은 자신이 노령의 파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비들을 면천시키고 이들을 군사에 편입하면서, “한 사람당 단지 무명베 반필씩 받았다”고 자백했다.⁷ 신충원이 받았다는 무명베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린 공명고신을 집행한 결과였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것은 어느 덧 교수형에 해당하는 犯臟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⁵ <<선조실록>> 권 56, 1594년 10월 계축(9일).

⁶ <<선조실록>> 권 66, 1595년 8월 갑인(14일).

⁷ <<선조실록>> 권 141, 1601년 9월 갑진(10일).

교형으로 죽어야 한다는 빗발치는 중론 속에 신충원의 생사가 어떻게 갈렸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지만 아마도 무사히 풀려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전란 중에 국가를 위해 충성을 바치어 헌신했던 신충원을 조선의 지배층들은 전란이 끝나자 무슨 원한으로 그를 처벌하고자 아우성이었는가? 신충원을 처음 추천했던 유성룡은 이에 대해, “신충원이 모집한 사람들 중에 공천과 사친이 많으므로 관리들과 노복을 잃은 주인들이 비방하는 말을 만드니, 여러 사람의 입에 시끄럽게 오르내렸던 것이다”라고 했다.⁸

노비는 사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목록이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해 싸우는 댓가로 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고 면천시켜 상민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족의 특권을 보장하는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족들의 특권적 존립기반을 근본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한 노비재산을 잃고 신분질서의 와해에 위협을 느낀 사족들은 전쟁 중에도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비의 충군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진보적 관료였던 유성룡도 전쟁 기간 중에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방책으로 속오, 작미법을 밀여붙여 시행하게 한 연유로 전쟁이 끝나갈 무렵 사족층의 공격을 받고 관직이 삭탈되어 고향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⁹ 사족의 특권적 신분질서에 손을 대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건드리면 사족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전란을 겪으면서 특권적 신분질서와 특권적 경제이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한 사족들은 전쟁 이후 자신들의 이익구조에 반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강조되는 충의 가치라도 이를 제거하고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충이라는 유교적 핵심가치는 전쟁이 끝난 후 그 의미내용이 변질되어 갔다. 1623년 광해군이 폐위되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국왕 인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금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는데, 사족과 노비를 제외한 평민층의 제한된 자원만을 갖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군적의 작성이 선결조건인데, 임진왜란 이후 전란의 뼈아픈 경험을 반추하며 실시된 군적의 작성 시도도, 군적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호적의 작성 시도도 모두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있던 인조는 인구의 파악 및 장악을 위한 첫 단계로 호패법을 실시하고자 했다. 임란 이후 군적작성이 실패로 끝난 것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군역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고 자신들이 소유한 노비들을 국가를 위한 군역과 무관하게 만들려 노력했던 사족층의 완강한 거부와 비협조에 있었다.¹⁰

⁸ <<西厓集: 西厓先生別集>> 권 4 (<雜著: 鳥嶺築城>).

⁹ 이는 유성룡에 대한 악의에 찬 남이공의 공격에 잘 나타나 있다. “유성룡이 훈련도감과 體察軍門에 속오, 作米法을 만들고 ... 이것을 빙자하여 이익을 탐내었으므로 마침내 백성들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하고, 촌락이 퇴색하게 하여 원망은 임금에게 돌리고 이익은 자신이 독차지 하였습니다... 庶隸의 천한 신분을 발탁하여 줄 때는 그들로 하여금 둔전을 파수하는 관원으로 설치하였는데, 거의 모두가 치질이나 빨아주는 무리였습니다.” <<燃藜室記述>> 권 17 (<宣祖朝故事本末>).

¹⁰ For a distailed discussion on this issue, see Nam-lin Hur. “Confucianism and Military Service in Early Seventeenth-Century Chosŏn Korea.” *Taiw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8, no. 1 (June 2011), pp. 59-69. 1626년의 한

상황이 위급해진 1626년 국왕 인조는 호패법의 실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채 1년도 안되어 조선의 남성인구는 103만에서 226만으로 급증했다.¹¹ 이에 힘을 얻고, 사족남성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 인조는 강화된 考講을 실시하여 이에 낙방한 자들은 모두 봉족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의 관료들은 들고 일어났다. 사간원이 먼저 항의했다. “軍籍法에서 가장 시행하기 어렵게 여긴 것은 士族을 軍保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조종조 이래로 군보의 이름은 처음에는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부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定屬되었으나, 하지만 그 법이 오랫동안 폐지되어 시행되지 못했고, 그 이름 또한 이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풍속이 야박하고 사나워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는 때에 常民들이, 사족이 강등되어 군보가 되는 것을 보고서 필시 저희와 같은 무리로 보아서 가며이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官家에서 賤役으로 부리게 되면, 이는 막대한 원한과 고통을 야기할 것입니다.”¹² 사간원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국가방위 보다는 신분질서의 가치가 우위에 선다는 것이었다. 군역은 충의 가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방위의 근간이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역은 오히려 이를 賤役으로 여기게 되는 풍조 속에서 이미 천민의 사역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사족들은 군포의 납부마저도 완강히 거부했다.

국왕 인조는 딜레마에 빠졌다. 종묘사직을 보전해야 하는 국왕이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족 지원층의 협조없이는 왕권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앞에서 호패법을 밀어부칠 수도 없었다. 국왕이 후퇴하는 기미를 보이자 사족 관료들은 사족의 계급이익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더욱 국왕에게 압박을 가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사족의 집단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대사헌 장유 등이 그 이유를 대변했다. “우리 나라의 사족과 노비의 제도는 참으로 천하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상하의 계통이 있고 尊卑가 정해져서 국가가 실로 이에 의지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병난을 당해서도 사족은 모두가 名節을 지켜 나라를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한 자가 전혀 없었으니, 임진난 때에 삼남의 의병이 모두 사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경 북도에는 본래 세족이 없었기 때문에 난을 선동하여 적에게 빌붙은 자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鞠慶仁이란 자가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이로써 보면 사족을 부식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만일 일체로 취급하는 법으로써 억지로 내몰아 卒伍에 함께 (군역에) 편입시킨다면 지방의 사족은 모두가 서로 슬퍼하며 오랜 전통을 가진 가문이 하루 아침에 胥隸로 강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¹³ 장유 등은 사족은 국가의 근간으로 이들에게 군역과 같은 천역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의하면 군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족남성은 약 4만을 해야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갖가지 구실로 이미 군역자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인조실록>> 권 13, 1626년 윤 6월 을묘 (15일).

¹¹ <<인조실록>> 권 13, 1626년 6월 병자 (5일).

¹² <<인조실록>> 권 14, 1626년 8월 계묘 (4일).

¹³ <<인조실록>> 권 14, 1626년 11월 신묘 (22일).

장유 등이 주장한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임란 중에 사족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의병은 국가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구한 원동력이었다. 이것은 사족이 자발적인 충정의 의지로 일어나 싸웠기 때문에 의롭고 성스러운 거사였다. 그러나 왕권이 강제로 사족에게 충절을 압박하고 군역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즉 충의 가치는 무엇 보다 사족의 이해에 부합되어야 하고, 자발적일 때 숭고하지만, 상층의 권력이 이를 강제할 때는 아무리 국가방위라 할지라도 비천한 가치로 전락한다는 논리였다. 그 다음 해 1627년 1월 강화로 피난하기에 앞서 위기에 몰린 국왕 인조는 호패법을 밀어부치려 했던 자신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¹⁴ 자신의 생존을 위한 타협이었다. 이 후 사족들은 義兵이라는 자발적 충의 논리를 갖고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조선후기에 있어 국가방위라는 객관적이고 의무적이며, 공적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충의 가치는 천역에 종속되고 말았다.

한편, 임란 이후 사족지배층은 孝의 가치, 즉 孝治를 내세워 자신들이 이상적인 유교적 사회질서의 선봉에서 있음을 강조하고, 왕권이 강요할 수 있는 충의 가치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효의 자율공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복출사의 강요에 대한 논의의 귀결이었다. 起復은 부모상을 다하여 거상 중인 사람을 국왕이 불러 공무를 보게하는 것을 지칭한다. 부모상을 당한 사람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삼년상이 끝나기 전에 국왕이 당사자를 불러 출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奪情起復이라고도 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국왕이 부모상을 당한 사람에게 탈정기복을 명하면 당사자는 거의 대부분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국가의 공무 즉 충은 공의 문제로 이에 비해 부모상과 관련된 효는 私의 문제로, 기복은 공이 사에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서 국왕의 의사가 관철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그 양상이 달라졌다. 1618년 광해군은 부친상을 당한 박승종에게 명나라에서 징병을 요청해 오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시체제나 마찬가지로 부친의 발인은 끝냈을 터이니 정승으로서 기복하여 변방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박승종은 이를 거부했다. “상중에 있으면서도 예를 지키기 않고 날마다 여러 첩들을 가까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박승종이었지만 기복을 둘러싼 국왕 광해군과의 줄다리기는 1년여 계속되었다.¹⁵ 박승종은 3년상을 관철했다. 임란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조대의 국가상황은 초반부터 위기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국가안위와 기복의 문제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향해가고 있었다. 조선후기의 기복출사에 대한 사족층의 입장은 17세기 중반 장유에 의해 대표되었다. <인조실록>은 장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신평부원군 張維가 출하였다. 장유의 자는 持國이고, 호는 谿谷으로… 그 뒤에 기복되어 정승에 제수되었으나, 소를 열여덟 번이나 올리면서 끝내

¹⁴ <<인조실록>> 권 15, 1627년 1월 정해 (19일).

¹⁵ <<광해군일기>> 권 138, 1619년 3월 12일 (을미).

나아가지 않았다.”¹⁶ 여기에서 말하는 장유의 疏本이란 인조가 내린 기복출사의 명에 대해 이를 거부하면서 올린 열여덟 번의 상소를 지칭한다. 모친상을 당한 후 국왕이 내린 기복의 명에 대해 열여덟 번의 상소를 올리며 버틴 장유 행적은 임란 이후 효의 가치가 충의 가치의 상위개념으로 자리잡게 되는 변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왕의 기복출사 명령을 거부하는 장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喪紀야말로 예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요, 綱常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동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가 한 번 허물어지면 예법이 없어지고 강상이 무너져 버리는 만큼,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못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망해 버릴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소); “아버이를 섬김은 은혜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임금을 섬김은 의리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서 은혜와 의리의 경중은 각기 마땅한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주로 아버이를 섬기는 일을 극진히 하지 못하고서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제대로 다하게 된 경우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충성이나 효성이 비록 그 정신은 일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內外와 本末의 차이가 없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상소)¹⁷ 여기에서 장유는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을 內와 外, 本과 末의 관계로 설정하고, 효가 충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왕 인조는 장유의 뜻을 굽힐 수 없었다. 장유의 상소는 사족층의 지지를 받았고, 효가 충에 우선한다는 가치구조는 조선후기에 정착되어 갔으며, 이를 의식한 조선후기의 국왕들은 민란 등이 크게 일어났을 경우 등의 특별 조치에서 보듯 다소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복에 대해 극히 소극적이 되어 갔다. 사족지배층이 왕권에 의한 기복출사의 명을 봉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후기에 있어 “충”의 가치에 대해 “효”의 가치가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년상으로 상징되는 부모에 대한 효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고의 가치로 확립되고, 그리고 나아가 왕권에 대한 견제 및 비판의 준거로 무기화하여 갔다.

3. 임진왜란과 “열”의 가치의 변모

침략전쟁에서 군인 이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늘 약자들의 몫이다. 임진왜란도 예외는 아니었다. 피난에 더디고 혹독한 환경에서의 생존에 약한 노인층,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사리 전화의 희생물이 된다. 그러나 전쟁 기간 중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주어야 할 정부는 지리멸렬했고, 온갖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사족남성들은 여성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는데에 실패했다.

임란 후 광해군 3년 1617년에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전쟁과 여성, 그리고 사족남성들의 관계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총 18 권으로 구성된 본 행실도는 열녀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8 권을 할애했다. 열녀편 8 권에 실린 열녀는 총 719 명으로, 이

¹⁶ <<인조실록>> 권 36, 1638년 3월 경진 (17일).

¹⁷ 장유 <<谿谷集>> (<起復拜相辭免疏>).

가운데 선조조(1567-1608)의 열녀는 553명, 그 가운데 임진왜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열녀는 441명으로, 선조조의 열녀만을 놓고 본다면 임진왜란이 배출한 열녀는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¹⁸ 여기에 수록된 열녀편의 탄생은 전쟁이 끝난 후 자신감을 회복한 국왕 선조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사회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광해군대에 이르러 맺은 결실이었다.

국왕 선조가 1608년 세상을 뜨기까지 전쟁으로 흐트러진 윤리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시작한 충효열의 절행자의 수집편찬 및 현창작업은 기록의 산실 및 확인작업의 어려움으로 완성을 보지 못했다. 절행자의 편찬작업에 관심을 경주한 광해군은 “임진년 병란 이후 충신 효자 열녀들이 많으므로, 각도에서 계본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이들을 정표하는 일에 대해서 속히 논의하고 복제하여 가상히 여기고 권장하는 뜻을 보이라”고 편찬 간행을 재촉했다.¹⁹ 정부가 절행자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으기는 했지만, 절행여부의 사실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족남성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했다. 집안 여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목도했던 이들은 악몽처럼 남아있는 비극을 영광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²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발문에서 유몽인은 열녀편에 대해, “죽어도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貞心을 지니고,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 정절로 푸른 소나무 흰 물결과 같은 맹서를 지켜 차가운 칼날도 피하지 않았던 행적을 열녀 8 권으로 편집하였다”고 설명하였다.²¹ 임란 이후 등장한 열녀의 핵심가치는 “죽어도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 정절” 그 일점에 있었다. 어떻게 전쟁의 와중에 그러한 성적 순결, 즉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왜적의 차가운 칼날도 피하지 않는 결사적인 마음가짐으로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린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열녀 441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437명은 모두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절을 지킨 것으로 되어있다. 말을 바꾸면, 정절을 지켜 열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사족남성들이 현창하고 그려내고자 했던 열녀의 핵심가치였다.

400명이 넘는 열녀에 관한 기술은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먼저 열녀의 이름과 거주지, 남편의 직분 혹은 신분을 기술한 후, 왜적의 침입으로 처해진 정절에의 위험상황이 서술된 후, 해당 열녀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취했던 행동과 그 후 어떻게 해서 죽게되었는지 혹은 살해되었는지를 설명한 후, 국가가 이를 높이 현창하기 위해 정문을

¹⁸ 보다 자세한 분석은 강명관 <<열녀의 탄생: 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서울: 돌베개, 2009), 304쪽 참조.

¹⁹ <<광해군일기>> 권 21, 1609년 10월 을축(17일).

²⁰ 왜적으로부터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고 보고하고 정부로부터 정려를 받았으나, 후에 그와는 달리 왜적에 의해 일본에 끌려간 것이 드러난 사례들에 대한 논의로는 Michael J. Pettid. “Fashioning Womanly Confucian Virtue: The Virtuous Women in Postwar Literary Discourse.” In *The East Asian War, 1592-1598: International Relations, Violence, and Memory*. Edited by James B. Lew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5, pp. 357-377 참조.

²¹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한국고전총서간행위원회, 1974, 844쪽.

내렸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여성의 정절은 정식 부인 뿐만아니라 비첩에게도 적용되어 남성과 성적관계에 있는 모든 여성은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린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열녀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절은 예외없이 모두 왜적이 위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쟁기간 중 여성의 정절을 위협했던 남성들은 왜적 밖에 없었는가? 전선이 확대되고 국내질서가 무너지고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여성은 여러 위협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쟁기간 중 여성의 정절을 위협한 것은 모두 일본군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임진왜란은 7년 8개월 가량 지속되었는데, 그 기간 가운데 일본군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으로 철수하여 주둔하고, 소위 강화협상에 집중했던 1593년 6월 이후 4년여의 기간 중에는 조선인과의 접촉은 제한적이었다. 1597년 7월 대거 재침을 시도하면서 경상 전라 충청 각도를 유린한 기간은 길게는 4개월 정도였다. 1597년말 이후 전쟁이 종결되기까지 일본군은 순천에서 서생포에 이르는 왜성에 주둔하면서 방어전에 주력하였다. 말하자면, 임진왜란 전 기간을 통하여 일본군과 조선인이 접촉한 시기 및 지역은 간헐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열녀의 발생은 압도적으로 일본군의 강간시도에 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큰 특색이다.

전란이 휩쓸고 가는 가운데 여성이 겪은 고통은 물론 정절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굶주림과 질병, 가족의 분산, 강도 등 전란이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왜적에 의한 강간의 위협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열녀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이러한 사례를 모집하고 편집하여 정부에 보고를 하였는가? 물론 이는 모두 사족남성들에 의해 취합되고 상상되고 기술된 것이다. 여성의 주체적 자기기술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족남성들이 상찬하고자 노력했던 여성상,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여 기억하고자 했던 전란의 비극과 여성의 관계설정의 상상도를 추출할 수 있다.

사족남성들에 있어 여성의 정절은 죽음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찌 일이 일어났는지 사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가 말해주고 있듯이 어떤 여성들은 왜적을 직접 보거나 딱따르지도 않았지만, 왜적이 다가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지레 겁을 먹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택했다. 전쟁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피난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다른 가족들은 그냥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는데 왜적이 온다는 소문에 혼자 몰래 나가 자살을 하는 조선의 여성,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말릴 생각은 않은 채, 이들이 미리 죽음을 택함으로써 정절을 지킬 수 있었다고 찬사를 보내는 사족남성들, 양자의 관계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되지가 않는다. 그럼에도 조선의 사족남성들은 정절은 죽음보다 값진 가치라고 경외를 보였다.

열녀들의 죽음은 오로지 남편을 향한 그리고 남편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왜적이 남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 자신의 몸으로 왜적을 막고 남편을 구한 여성들도 정절의

표상으로 상찬되었다. 위험에 처한 아내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쳤다는 남편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다. 정절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식도 자신의 부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 자식을 버려두고 오로지 남편에 대한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버렸다고 열녀편은 증언하고 있다.

임란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는 죽음으로써 남편을 향한 성적 순결을 지켰다는 정문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가 간행될 즈음 세간의 평가는 다소 조소적이었다. “난리에 부인이 병화로 죽은 자가 비록 많더라도 본래 왜놈들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했으므로 까닭 없이 칼을 맞아 죽은 자에게는 기록할 만한 절의가 없는데도 그 門族들이 그 일을 크게 만들려고 장황하게 거짓말로 보고하는 자들이 있었다. 심한 경우는 더러 포로로 잡혀가 절의를 상실했는데도 부형과 자제들이 그 추행을 숨기고자 거짓으로 보고하고 허위로 작성한 것도 있었다.”²² 그럼에도 조선의 사족남성들이 부식시키고자 한 열녀상, 정절의 가치이념에 대한 담론은 임란 이후 조선사회의 여성을 규제하는 지고의 가치로 정착되어 갔다.

물론 조선전기의 사회에는 열녀는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들 열녀도 모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열녀는 그 내용이 여러 방면에 걸쳐있었다. 남편의 사후 개가를 거부한 경우, 죽은 남편을 위해 유교식 장례를 준수한 경우, 병든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 먹이고 치료하고자 한 경우, 겁탈의 위협에서 자살하거나 항거하다가 살해된 경우, 그리고 죽은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여성에 관한 다양한 유교적 윤리가치는 열거하다는 뜻의 “열”로 집약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여성의 덕목으로 일곱 가지의 유형 즉 지혜, 변론, 정치권력, 내조, 모성 등의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들고 이를 구현한 여성들을 “列女”로 찬양했는데, 정절의 가치는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였다.²³ 그러나 조선후기로 오면서 다양하게 열거되던 “列女”의 덕목은 성적 순결 하나에 모아지면서 종래의 “列”의 가치는 “烈”의 가치로 획일화되었다. 사족남성들의 작품이다.

“烈”의 윤리적 가치를 향한 광분은 적어도 조선이 막을 내리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사족남성들에게 있어 “烈”의 가치는 그만큼 필요했고, 마력이 있었고, 편리했고, 그리고 사회적 수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각 지역에서는 각종 열녀전이 만들어져 유포되고, 각 가문에서는 <女誠> <內則> 등의 교훈서를 중심으로 열녀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열녀의 칭호를 받고자 서류를 만들어 관가에 보내는 사족들의 서류몽치는 지방관아에 쌓여 갔고, 금전을 바치지 않으면 채택이 안되는 상황으로까지 열녀의 가치는 돈이 오고가는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사족남성들의 지배욕은 집요했고,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를 통해 자신들이 그리는 이상사회를 밀고 나아갔다.

²² <<광해군일기>> 권 73, 1613년 12월 을미(12일)

²³ 이숙인 <<정절의 역사: 조선 지식인 성 담론>> (서울: 푸른역사, 2014), 201 쪽 참조.

4. 결론

신충원과 김덕령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충”이라는 유교적 가치는 현실적 이해의 냉혹한 작동구조를 표면에서 감싸주는 그럴싸 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현실적 이해를 실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엔 언제나 폭력이었지만, 조선의 국왕 및 지배층은 이를 유교적 가치개념으로 분식하려 했다. 때문에 조선사회가 유교적이었다는 전제는 조선사회에 대한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전쟁기간 중 왕권이 와해되는 위기를 뼈저리게 겪은 조선의 국왕(왕권)과 자신들의 계급이익이 침해되는 현상들에 위기를 느낀 사족지배층은 임란 이후 기존의 권력과 특권을 회복하고 이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경주 속에서 왕권과 사족층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립관계에 있었다.

임란 이후 “효”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실행을 통해, 사족층이 자신들을 충의 가치로 표상되는 왕권의 대척점에 위치치우고 나아가 자율적인 효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는 사족층의 배타적 이익공간의 구축을 의미했다. 충에 우선하는 효의 가족윤리는 왕권의 침해로부터 사족을 보호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왕권으로부터 사족을 도피시켜 줄 수 있는 피난처의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효의 가치는 사적 윤리의 차원을 벗어나 공적 윤리의 지위까지 얻게 됨으로써, 公事로서의 효의 실행은 전세, 부역, 군역의 수취권을 독점하는 왕권에 대한 대항적 정치무기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²⁴

나아가 기복출사의 거부로 대표되는 삼년상 상례의 확립은 임진왜란 이후 점차 이완되어 가는 신분사회에 있어서 사족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특권화하고 준별화하는 기제였다. 삼년상의 상례는 일년 내내 자기 노동에 생존을 의존해야 하고, 더우기 사족의 수탈경제에 종속되었던 일반 백성 및 노비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들 피지배층이 삼년상의 상례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경제 여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때문에 기복은 아무리 내려와도 중인계층 정도에까지만 의미가 있는 왕권의 행사였던 것이나, 이러한 왕권의 행사는 효라는 지고한 유교적 가치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 임란 이후 조선의 사족남성들은 변태적으로 구축된 “烈”의 가치를 통해 중범적 가족질서를 강화했다. 하지만 성적 순결에 초점을 맞춘 열녀의 창출은 조선의 유교사회가 구축해간 윤리의 탈을 쓴 지배의 내재적 폭력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사족 남성들은 여성, 특히 사족층 여성에 대해, 성의 억압과 굴종, 인간성과 자율의 박탈이라는 폭력을 열녀라는 포장으로 성스럽게 치장하고, 사회전체를 자신들을 위한

²⁴ 효를 둘러싼 私義와 公義의 논쟁과 효가 충보다 앞선다는 논거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효의 가치는 天理의 公의 영역에 속한다는 조선후기의 사교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현종 때의 공의 사의 논쟁이 참고가 된다. 정만조 <조선 현종조의 私義 公義 논쟁> (<<한국학논총>> 제 14 집 (1991년)); 이원택 <顯宗朝의 復讐義理 논쟁과公私 관념> (<<한국정치학회보>> 제 35 집 4호 (2002년)).

성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여성의 남성애의 종속은 충의 가치로 연결되고, 가문의 청결한 가계와도 결합되었다.

전쟁이라는 비극은 사족 지배층에게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유교적 덕목과 윤리가치를 재정립하게 하여주는 기제가 되었다. 왕권을 견제하면서, 가족 내부의 종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신분제 사회의 특권을 구조화시키는데 있어 충효열이라는 상호 융통하는 윤리가치는 고고한 담론으로 무장된 유효한 도구였다. 사족지배층 특히 사족 남성들의 현실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원으로서 위세를 떨친 충효열의 가치구조는 그 물적구조와 맞물려 조선사회를 상하로 지배했다.